

평양검무의 전승과 활성화 모색을 위한 분석연구

이득춘* 상명대학교

초록 본 연구는 평양검무의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분석 연구로서 한국 무용전공생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 및 평양 검무 전문가 2인과 문화재위원 2인 총 4명의 전문가 심층 면담을 진행하였다. 평양검무는 무형문화재 전문위원들과 함께 3회의 원형복원 과정을 진행하였고 현재 평양검무보존회에서 전문가 양성교육과 공연을 통해 전승을 이어가고 있으며, 그 원류가 북한 지역이나, 현재는 남한에서도 복원과 전승을 한정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평양검무는 남북한의 분단 상황을 넘어서는 보존과 전승의 가치가 있다. 평양검무에 관한 무용인들의 인식은 있으나 적은 횟수의 공연과 홍보 부족으로 인하여 대중성이 떨어진다. 다른 검무에 비해 평양검무는 춤사위가 크고 활발하며 머리 윗 사위가 주조를 이루는 차별성을 가지는데, 특히, 팔 위에 칼을 얹지 않고 손목을 돌려 칼을 돌리는 돌림사위 동작은 예술적 가치로서 의미가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평양검무의 활성화를 위해서, 공연의 레퍼토리를 개발하고 교육의 기회 제공을 통해 다양한 홍보가 진행되어야 한다. 평양검무를 이어갈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무용인을 지속적으로 양성해야 하고, 다양한 평양검무 관련 콘텐츠가 개발됨으로써 대중들에게 관람의 기회가 증대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하는 과제를 안겨주고 있다. 이상을 바탕으로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의 설명력을 높이기 위해서 확률적 표집을 만들어서 제시해야 한다. 둘째, 후속 연구에서 평양검무의 다양한 콘텐츠 프로그램을 조사, 분석하고, 그것이 대중의 인지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연구 결과를 제시한다. 셋째, 전통 무용의 범위에서 평양검무가 가지는 위상을 넓히고, 평양검무가 전통 무용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역할에 대해서 추가 연구를 해야 할 것이라 사료된다.

주요어 : 검무, 평양검무, 무형문화재, 무용 콘텐츠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검무는 무형문화재에 속한 무용으로서 인류의 시작과 함께 다양한 목적으로 자생적으로 발생하여, 한반도 전역에서 역사적으로 보존되고 있는 우리나라 전통춤(민향숙, 2016:8~10; 민태금,1984:84)이다.

검무의 형태는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진주검무 (1967년 제12호), 통영검무(1986년 제21호), 경기검무(경기도 무형문화재 제53호)가 있으며, 밀양검무, 호남검무, 해주검무, 평양검무(평양 남도 무형문화재 제1호) 등이 다양하게 그 맥을 이어오고 있다(임영순 외, 2015:184). 이 중 진주검무, 통영검무, 경기검무, 밀양검무, 호남검무는 한국전쟁 이후 분단된 우리나라 지역 중 남한 지역에서 전통의 맥을 이어온 검무이고, 해주검무와 평양검무는 북한 지역에서 전통의 맥을 이어 온 검무이다.

검무의 종류만 보았을 때, 남쪽 지역보다 북쪽 지역의 검무가 적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한국전쟁 이후 남과 북이 나뉘면서 북쪽 지방의 검무의 전승이 끊긴 것이 원인이라고 짐작할 수 있으며, 현재는 북한 지역의 기예능인들이 남한에 자리 잡고 정착하게 되면서 북한 지역 전통문화 중 일부가 남한에서 어렵게 전승되고 있으며, 평양

* 상명대학교 일반대학원 공연예술경영학과 박사과정, ldc4111@naver.com

검무도 그 안에서 명맥을 이어가는 현실이다.

참고로 북한 지역 기반의 국가무형문화재의 대표적인 예로는 제15호 북청사자놀음, 제17호 봉산탈춤, 제29호 서도소리, 제34호 강령탈춤, 제61호 은율탈춤, 제82-2호 서해안 배연신굿 및 대동굿, 제86-1호 문배주, 제90호 황해도 평산 소 놀음굿이 있고 시·도 무형문화재로는 인천시 무형문화재 제3호 인천 근해 갯가 노래 배 노래, 제24호 꽃맞이굿(황해도 굿), 제25호 지화장(황해도 지화)과 평양검무가 있다(최희아, 2021:134). 평안남도 무형문화재 제1호인 평양검무는 1951년 평양에서 월남한 이봉애(1923-2019)가 1985년 안양시 석수동에 평양검무보존회를 설립 하면서부터 복원되었고, 2001년 ‘평안남도 무형문화재 제1호’로 지정받아 현재 20여 년째 전승되고 있다(유안나, 2020:2).

북한 지역의 무형문화재를 복원하고 전승하는 것은 단절된 남북의 상황에서 가치와 의미가 크다. 남북한의 인류 문화유산은 분단 이전에 생성되어 계승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공향하고 계승 발전시키는 것은 민족의 동질성 회복과 신뢰 구축 및 사회통합에 중요한 밑거름이 되기 때문이다. 무형문화유산은 유형문화유산과 비교하였을 때, 인적자원들을 통한 교류가 가능하고 문화적 소통으로 남북한의 이질적 거리감을 좁히고 평화구축에 일조할 수 있다. 또한, 남북이 통일되거나 종전으로 인한 남북교류가 활발히 이뤄질 때 남과 북의 문화교류는 통일 대한민국의 새로운 문화를 창조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잘 보존된 무형문화유산은 남과 북 모두에게 매우 가치 있는 문화 자산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평양검무의 경우에는 ‘평안남도 무형문화재 제1호’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형문화재를 이어받아야 할 예인들과 지원예산 및 홍보 부족으로 명맥을 이어가기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평양검무의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하여, 평양검무의 역사적 가치와 예술적 가치를 고찰하고, 무용전공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와 평양검무 무형문화재 보유자 2인과 문화재위원 2인의 전문가 심층 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의 의견 수렴을 통해 그 활로를 찾음으로써 평양검무의 원활한 전승을 위한 연구를 그 목적으로 둔다.

2. 연구 문제 및 방법

본 연구를 달성하기 위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평양검무의 유래와 전승을 살펴보고 역사적 가치를 고찰해 본다.

둘째, 평양검무의 복원과정 연구를 통해 검무로서의 예술적 가치를 고찰해 본다.

셋째, 한국무용 전공생 대상 평양검무에 관한 인식현황실태 파악을 위한 설문 조사와 평양검무 전문가와 문화재청 문화재위원의 심층 면담(F.G.I)을 통해 평양검무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한다.

II. 평양검무의 유래와 전승

1. 평양검무의 유래

평양검무는 평안남도<팔청리 고분벽화>와 황해도 안악군에 있는 벽화고분 <안악 3호분>의 그림에서 현재 평양검무의 동작과 매우 유사함을 찾아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평양검무는 삼국시대 이전부터 행해온 우리 민족의 전통문화로 볼 수 있을 것이다(김영란, 2005:16~19). 이후 조선 시대 즉 18C 후반 김홍도의 평안감사 환영 도와 신윤복의<풍속도 화첩 속 ‘쌍검대무’>에서도 검무의 모습이 나오는데 이 검무의 형태는 오늘날 평양검무의 모습과 매우 흡사함을 알 수 있다(유안나, 2020:17). 이 시기는 평양이 조선 무역의 중심도시로 발달했었고 그로 인해 평양지방 검무는 나라의 중요한 사절들을 맞이하기 위해 교방청을 설치하고, 교방청의 명기들은 다양한 전통 예능을

연행하였다(황지윤, 2005:34).

그중 검무는 대표적 연희 중 하나로 오늘날 평양검무의 원류인 것이다. 평양검무는 북한 지역에서 유구한 역사를 지닌 전통춤이다. 한국전쟁 이후 남과 북이 분단되면서 남·북 모두 평양검무의 명맥이 사실상 끊기었으나, 평양검무를 유일하게 배운 이봉애(1923-2019)를 중심으로 평양검무의 복원작업이 이뤄졌다. 복원과정은 크게 3차례 진행되었으며, 그때마다 많은 학자의 고증이 더해졌다.

이봉애는 평양 출신으로 1937년 14세 때 평양 기성 권번 출신인 예기 김학선에게 3년간 평양검무를 배웠으며, 1951년 1.4 후퇴 때 월남하여 안양에 정착하게 되었다. 정착 후 이봉애는 서도소리 보존회를 찾아가 서도소리 기 능보유자인 오복녀(중요무형문화재 제29호)에게 서도민요, 산염불, 난봉가, 서도소리를 6여 년간 배웠으며, 김정연 에게는 춤을 배웠다. 이봉애는 평양검무 복원과정 때 오랫동안 평양검무를 잊고 지내왔기에 양소운(해주검무)에게 찾아가 도움을 받았다고 한다.

이후 이봉애(당시 60세)는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에 서도소리 교습소를 운영하며 서도소리와 민요 그리고 장구 를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며 후계자를 양성하기 시작했다. 이곳에 1985년 5월에 평양검무보존회를 설립하 여 제자 정순임(2대 보유자)과 함께 평양검무 복원작업을 진행하였으며, 이보형(문화재청 전문위원), 심우성(문화 재청 전문위원)과 양소운(해주검무) 장단 반주자로는 피리 김호석(당시 봉산탈춤의 전수 조교), 최경만(서울시 무 형문화재 제44호 삼현육각)등 문화재청 전문위원회 위원들의 도움을 받아 복원된 평양검무를 1988년부터 제자들 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였다(민향숙, 2021:32~35).

1992년 5월 안양문화회관 소극장에서 1회 평양검무 정기 공연이 개최하여 초기의 평양검무 공연은 원형(原形)의 모습대로 8검무(八劍舞)를 기본으로 25분을 추었으며 평양검무 장단을 모두 타령장단으로 구성하고 만장단으로 마무리 하였다. 1995년 2차 복원구성 시, 1985년 1차 복원구성 때 타령장단과 만장단 동작으로만 복원되었던 평양검무 는 반복된 동작과 타령장단만으로 이루어진 형태에서 반복된 동작을 줄이고 연무 시간을 약 25분에서 14분가량으로 축소하여, 이보형(문화재청 전문위원), 양소운(해주검무), 인남순(처용무 전수조교), 음악 연주자 김영신, 박동신, 최원 목을 통해 평양검무에 엽불장단과 평안도식(해서) 피리 가락을 이루는 피리와 장구 반주장단을 추가하였다.

이렇게 엽불장단과 타령장단으로 구성함으로써 정재 검무의 형식을 갖추고 궁중 검무인 검기무를 기반으로 엽불 장단이 추가된 평양검무로 변모하여 평안남도 무형문화재 제1호로 등재되었다. 2012년 민속학자 양중승(문화재청 전문위원)의 고증 하에 경기 대풍류의 최고 피리 주자인 최경만에 의해 제2대 보유자 정순임이 반복된 동작들을 빼 고 건 곤 사선, 하늘 치기, 무진 무퇴 등의 동작을 더하는 식으로 춤 동작과 대형 구성을 재구성하였으며, 반주 음악 도 변화를 주어 평안도식(해서) 피리 가락을 이루는 피리와 장구 반주장단에 서울시 문화재 <경기대 풍류>의 최고 피리 주자인 최경만에 의해 또 한 번 재구성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평양검무보존회, 정순임 인터뷰 중, 2021).

2. 평양검무의 전승 체계 및 실태

평양검무의 전승 교육은 평양검무보존회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3년 과정의 교육을 수료하면 이수자 시험 자격 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2014년부터 한세대학교 지식정보교육원의 평양검무 과정을 수료하고 난 후 평양검무보 존회 교육과정 1년을 추가로 수료한 자에게도 이수자 시험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이처럼 평양검무 전승 교육과정 은 평양검무보존회를 통한 하나의 과정으로 구축되어 있다. 전승 교육은 전승 교육사가 따로 없어 현재 2대 보유 자 정순임과 3대 보유자 임영순이 직접 진행하고 있다. 교육과정의 내용은 <표 1>, <표 2>와 같다.

표 1. 평양검무보존회 전승 교육 프로그램

구분	내용
강의내용	평양검무, 기성 검무
교육과정	3년
자격부여	이수자 시험 자격
전승 교육사	2대 보유자 정순임, 3대 보유자 임영순

표 2. 한세대학교 지식정보교육원 내 개설 강의

구분	내용
개설연도	2014년
강의내용	평양검무, 임영순류 평양살풀이, 남무
교육과정	2년 4학기제
자격부여	수료증 교부, 평양검무보존회에서 1년 추가 수료자는 이수자 자격시험 부여
전승 교육사	3대 보유자 임영순

현재 평양검무 이수자 시험은 비정기적 수시 진행하고 있다. 2002년 2명(정순임, 정희경)의 첫 이수자 배출을 시작으로 2005년까지 27명의 이수자를 배출했으나 그 후 2013년까지 9년의 공백 기간이 있었으며 이는 이수 교육생 수급이 원활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예이다. 현재 2020년까지 총 102명의 이수자들을 배출했다. 역대 평양검무 보유자는 3대 보유자 임영순까지 이어졌으며, 현재 2대 보유자 정순임과 3대 보유자 임영순이 동시에 보유하고 있다.

1대 보유자	↔	이봉애(1923-2019)	2001년 평안남도 1호 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2대 보유자	↔	정순임(1950 - 현재 생존)	2011년 보유자 인정
3대 보유자	↔	임영순(1952 - 현재 생존)	2014년 전수 조교, 2016년 보유자 인정
전승 교육사	↔	현재 평양검무의 전승 교육사는 없음.	

그림 1. 평양검무의 보유자 및 전승 교육사 현황

평양검무의 공연 또한 열악한 상태이며, 현재까지 평양검무 정기 공연은 1992년 시작으로 2019년까지 총 29회가 진행되었다. 그 이후 2022년 3월 현재 2020년과 2021년 즉 제30회, 제31회 정기 공연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문화재청, 2020). 또한, 평양검무 관련 논문이나 출판물 또한 꾸준히 발표되고 있으나 보유자 또는 이수자 등 한정적 범위에서의 연구가 이뤄지고 있다.

Ⅲ. 무용계 의견 수렴을 통한 ‘평양검무’의 활성화 방안 고찰

1. 의견 수렴의 방법

본 연구는 평양검무의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하여 무용인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의견 수렴을 위한 방법으로 한국무용을 전공한 무용전공생 집단(이하 “A 집단”)의 인식 설문 조사를 서울 및 경기도 거주하는 5년 이상의 무용전공생과 대학원생들을 연구대상으로 유목적 표집을 실시하여 총 200명이 설문 조사에 응하였다. 표본 추출법(Purposive Quota sampling)으로 연구 설계하여 2022년 1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15일 동안 200명에게 14가지 문항의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평양검무의 전문가 심층 인터뷰는 평양검무 무형문화재 2대 보유자 정순임과 3대 보유자 임영순, 문화재청 문화재위원이며 대한무용협회 이사장인 조 ○ ○ 와 이북5도 무형 문화재위원 최 ○ ○ 를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4명의 전문가를 심층 인터뷰 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다음의 이유에서이다.

평양검무 전문가로 정순임과 임영순 보유자를 선택한 이유는 첫째, 현재 생존하고 있는 평양 검무의 무형문화재 보유자이다. 둘째, 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을 위해서는 무형문화재위원회 위원 또는 전문위원 등 관계전문가 3인 이상이 조사를 실시한 후 조사 결과를 토대로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데 이때, 가장 중요한 무형문화재의 역사적 고증이 보유자 인터뷰의 내용을 바탕으로 심의를 거친다. 그러므로 평양검무의 전통성과 예술성, 활성화에 대한 역사적 고증에 관하여 1대의 이봉애 보유자의 뜻을 이은 2대 정순임 보유자와 3대 임영순 보유자가 평양검무보존회의 대표성을 가진다. 셋째, 평양검무보존회는 무형문화재로 인정되는 과정에서 비전공자들의 취미로 시작한 회원들에서 현재 전공생의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는 단계이다. 평양검무보존회의 전문성 토대 마련을 갖추기 시작한 때가 오래되지 않아 평양검무는 춤의 기술적 전승을 하고 있으므로 보존회의 회원들은 평양검무의 심층 있는 인터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보유자 2명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또한, 문화재청 국가 무형문화재위원의 무용협회장 조 ○ ○ 와 이북5도 무형문화재 위원의 최 ○ ○ 를 선택한 이유는 평양검무의 문화재 지정에 있어서 이론과 실기의 검증을 통해 평양검무의 예술성과 가치성을 고증한 대표 전문가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심층 인터뷰는 사회현상의 맥락과 인간의 사고와 가치관을 파악할 수 있으며 연구집단의 현상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연구 방법(전영국, 2017)으로 비구조화된 면담(Unstructured interview) 방식을 선택하여 자유스러운 상태에서 개방적으로 면담을 진행하였다. <표 3>은 A 집단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표 3. A 집단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구분		빈도(명)	비율(%)
성별	남학생	36	18.0
	여학생	164	82.0
연령	20~24세	129	64.5
	25~29세	35	17.5
	30세 이상	36	18.0
교육 수준	대학교 재학	56	28.0
	대학교 졸업	64	32.0
	대학원 재학	51	25.5
	대학원 졸업	29	14.5

무용전공생 200명의 응답자는 남자 36명(18%)과 여자 164명(82%)으로 여자의 참여율이 64% 더 높았다. 참여자의 연령은 20~24세가 129명(64.5%)로 가장 많았다. 응답자의 교육 수준은 모두 대학교 재학 이상으로 대학 졸업 64명(32%), 대학 재학 56명(28%), 대학원 재학 51명(25.5%), 대학원 졸업은 29명(14.5%)로 나타났다.

2. 조사 도구 및 절차

본 연구는 설문지를 조사 도구로 사용하였으며, 무용전공생용으로 일반적 특성 질문을 포함하여 총 14가지 문항으로 인식 설문 조사의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전문가용으로 총체적 접근과 해석적 접근의 범주로 나누어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연구의 모형은 <그림 2> 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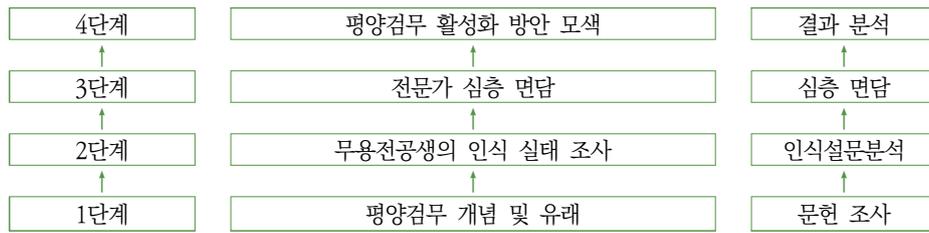


그림 2. 연구 모형의 틀

3. 조사 및 문항별 결과

본 연구는 설문지를 조사 도구로 이용하여 총 14개 문항을 A집단에게 설문 조사를 진행하였다. 평양검무 인식에 관한 의견 중 가장 적절한 것을 선택하는 인식조사의 방식으로 진행하였으며 문항별 조사 결과는 아래와 같이 표로 정리하였다.

〈표 4〉는 검무의 인지도 조사에 관한 것으로 총 3개 문항으로 진행되었다. 현재 전승 및 보존 진행 중인 우리나라 검무 종목들에 대한 인식 유무에 관한 문항에 “그렇다” 56%, “아니다” 44%로 무용전공생들의 평양 검무는 12%가 더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평양검무를 비롯한 우리나라 지역별 검무들에 대해 인식조사는 복수 선택으로 진행하였다. “진주검무” 33%, “밀양검무” 11%, “통영검무” 8.5%, “경기검무” 20.5%, “해주검무” 7.5%로 진주검무에 대한 인지도가 가장 높았고, 경기검무가 두 번째로 높았으며 그다음은 평양검무로 19.5%가 인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평양검무의 평안남도 무형문화재 제1호 지정된 것의 인지도 조사에 관한 것으로 첫 번째 문항에서 평양검무를 인식하고 있다는 112명의 대상자들에게 질문하였다. “그렇다” 20%, “아니다” 80%로 무용전공생들이 평양 검무가 평안남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여부에 관하여 대부분 인지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분석을 통해 검무 중 가장 많은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진주검무이나 평양검무에 관한 인지도가 밀양검무, 통영검무, 해주검무보다는 높게 무용전공생들에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평양검무가 평안남도 무형문화재 1호로 지정된 사실을 80% 이상이 잘 모름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대부분의 무용전공생들은 평양 검무에 관한 이름은 들어본 적이 있으나 구체적으로 인지하고 있지는 않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 4. 검무의 인지도 조사

구분		빈도(명)	비율(%)
평양검무 인식 유무	그렇다	112	56.0
	아니다	88	44.0
다른 지역 검무 인식	진주검무	66	33.0
	밀양검무	22	11.0
	통영검무	17	8.5
	경기검무	41	20.5
	해주검무	15	7.5
	평양검무	39	19.5
평안남도 무형문화재 지정 인지도	그렇다	22	20.0
	아니다	90	80.0

〈표 5〉는 평양 검무의 경험 도에 관한 조사로 총 4가지 문항으로 진행되었다. 평양검무 공연 경험 여부에 관한 문항은 직접 공연에 참가한 경험에 관한 질문으로 “그렇다” 22%, “아니다” 78%로 대부분의 무용전공생들이 평양 검무 공연에 직접 참여하지 못한 것을 알 수 있다. 경험한 공연 형태에 관하여 직접 참여한 경우는 4.6%로 가장

낮았으며, 가장 높은 경험은 동영상 관람 39.5%가 가장 높았음을 알 수 있다.

평양 검무 교육 경험 여부에 관하여 78%가 “아니다”로 응답하여 대부분의 무용전공생들은 평양검무의 교육 경험이 없으므로 나타났으며, 경험한 교육의 형태에 관하여 기타 45%로 동영상으로 개인적인 관심으로 찾아본 것을 교육의 형태였다는 의견이 다수 있었다. 이외에 학교 수업 참여가 33%로 높았는데 이는 일회성의 교육으로 진행되었다는 의견이 많았다.

표 5. 평양검무의 경험도 조사

구분		빈도(명)	비율(%)
평양검무 공연 경험 여부	그렇다	44	22.0
	아니다	156	78.0
경험한 공연의 형태	공연 직접 참여	9	4.6
	공연 관람	32	16.0
	동영상 관람	79	39.5
	교육형 공연 참여	5	2.5
	기타	75	37.4
평양검무 교육 경험 여부	그렇다	44	22.0
	아니다	156	78.0
경험한 교육의 형태	학교 수업 참여	66	33.0
	지역기관 수업 참여	22	11.0
	스승의 개인지도	22	11.0
	기타	90	45.0

위의 문항은 평양검무의 경험에 관하여 공연과 교육으로 나누어 설문을 진행하였다. 공연 경험 여부에 관하여 대부분 경험이 없고 가장 많은 경험은 개인적인 관심으로 동영상을 직접 찾아본 형태가 가장 높아 공연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음으로 해석 할 수 있다. 교육 경험 여부도 대부분 경험이 없었고 이 또한, 동영상으로 공연을 접한 후 개인적으로 동작을 습득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 6〉는 평양검무의 작품성 및 예술성의 인식도에 관한 조사이다. 평양검무 인식 유무에 “그렇다”로 응답한 112명을 대상으로 제한하여 진행하였다. 평양검무가 다른 검무와 비교하여 작품성과 예술성의 인식도에 관한 질문의 척도는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로 진행하였다. 이 중 “매우 그렇다” 7%, “그렇다” 36%, “보통이다” 36%로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평양검무의 작품성 및 예술성 인식에 관하여 무용전공생들의 평양검무에 관한 작품성과 예술성의 인식도는 약간 높은 편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6. 평양검무의 작품성 및 예술성의 인식도 조사

구분		빈도(명)	비율(%)
작품성 및 예술성 인식도	매우 그렇다	7	7.0
	그렇다	41	36.0
	보통이다	41	36.0
	아니다	16	14.0
	전혀 아니다	7	7.0

〈표 7〉는 평양검무의 예술적 특별성에 관한 문항으로 평양검무 인식 유무에 “그렇다”로 응답한 112명을 대상으로 제한하여 총 5가지로 조사하였다. 평양검무의 예술적 특별성에 관하여 무형문화재 보유자들의 인터뷰를 기준으로 칼 동작과 음악으로 제한하여 제시하였다. 평양검무만의 예술적 특별성에 관하여 “팔 위에 칼을 얹지 않고 손목을 돌려 칼을 돌리는 돌림사위 동작”이 40%로 가장 높았으며 이를 평양검무가 다른 검무와 다른 특별성이라

는 의견이 많았다.

본 문항의 선택은 아는 대로 선택 가능한 것으로 복수 선택으로 진행하였다. 이 분석 결과를 통해 평양검무의 예술적 특성에 관하여 팔 위에 칼을 얹지 않고 손목을 돌려 칼을 돌리는 돌림사위와 위로 칼을 힘차게 뿌리는 칼 동작으로 각각 40%, 37%로 높았는데 이는 검무의 예술적 특별성은 칼 동작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알 수 있다. 즉, 평양검무의 칼 동작이 다른 지역 검무와 다른 동작을 예술적 차별성으로 인지하고 있음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7. 평양검무의 예술적 특별성 조사

구분	빈도(명)	비율(%)	
예술적 특별성	위로 칼을 힘차게 뿌리는 칼 동작	74	37.0
	팔 위에 칼을 얹지 않고 손목을 돌려 칼을 돌리는 돌림사위 동작	80	40.0
	상체를 숙이고 젖힘 없이 상체를 세워 왼쪽으로만 도는 연풍대	26	13.0
	연풍대 동작에서 앉아서 칼로 땅을 치는 동작과 객석을 향해	50	25.0
	2열 종대로 춤을 마무리하는 동작		
평안도식 (해서) 피리 가락으로 이루어진 음악 장단	60	30.0	

〈표 8〉는 평양검무의 대중화 방안에 관한 문항으로 “대중들이 쉽게 즐길 수 있는 공연레퍼토리 개발 필요성”에 관한 의견이 31%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는 “공연 관람의 기회 증가”가 25%로 높았다. 위 문항의 분석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평양 검무의 대중화 방안은 평양검무의 공연레퍼토리 개발과 전통 예술교육 프로그램 증설로 무용전공생뿐만 아니라 관객들과 잠재 관객을 위한 접근성에 관한 비중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8. 평양검무의 대중화 방안

구분	빈도(명)	비율(%)	
활성화 방안 의견	대중들이 쉽게 즐길 수 있는 공연레퍼토리 개발	62	31.0
	공공기관에 전통예술 교육프로그램으로 개설	38	19.0
	공연 홍보의 활성화	23	11.5
	공연 관람 기회의 증가	50	25.0
	보존회와 연결된 학교 교육 프로그램 진행	27	13.5

〈표 9〉는 평양검무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시 참여할 의사 여부에 관한 문항이다. “매우 그렇다.” 35%, “그렇다” 42%의 77%가 교육 참여 의사가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이 분석 결과에서 확인한 것 같이 평양 검무를 교육받고 싶어 하는 무용전공생들의 필요가 매우 높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다양한 검무들과 차별성을 가지고 개인적 콘텐츠를 확보하고 발전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높음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9. 평양검무의 참여 의사

구분	빈도(명)	비율(%)	
교육 참여 의사	매우 그렇다.	70	35.0
	그렇다	84	42.0
	보통이다	36	18.0
	아니다	6	3.0
	전혀 아니다	4	2.0

〈표 10〉은 평양검무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의견 수렴으로 평양검무의 전문가 4인의 심층 인터뷰 내용을 정리 및 분석한 것이다.

표 10. 심층 인터뷰 개요

구분	내용	
인터뷰 기본정보	일시 : 2022년 4월 13일 장소 : 양천구 평양검무보존회 대상 : 2대 무형문화재 정순임 보유자, 3대 무형문화재 임영순 보유자 일시 : 2022년 11월 5일 장소 : 대학로 상명대학교 교수실 대상 : 국가 무형 문화재위원 조OO, 이북5도 무형 문화재위원 최OO	
인터뷰 범주 영역	총체적 접근 보존의 가치성 평양검무의 차별성	해석적 접근 평양검무의 활성화 방안
질문사항	1. 평양검무만의 춤사위의 특징 2. 평양검무만의 예술적 가치	3. 평양검무의 대중화 작업

평양검무의 전문가 심층 인터뷰는 1차, 2차에 나누어 진행하였다. 1차는 평양검무 무형문화재 2대 보유자 정순임과 3대 보유자 임영순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평양검무의 문화재 지정에 있어서 이론과 실기의 검증을 통해 평양검무의 예술성과 가치성을 고증한 대표 전문가로 문화재청 국가 무형 문화재위원이며 대한무용협회 이사장인 조OO와 이북5도 무형 문화재위원 최OO를 대상으로 2차 진행하였으며 동일한 질문으로 객관성을 가지고 평양검무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하였다.

표 11. 전문가의 의견 수렴

질문1. 평양검무 춤사위의 특징
(2대 무형문화재 정순임 보유자) 평양검무는 쌍대춤으로 초창기에는 8검무로 추었으며 무대의 크기나 공연의 성격에 따라 2검무, 4검무, 8검무, 12검무, 16검무, 32검무로 추어질 수 있다. 춤사위가 크고 활달한 점이 특징이며 북한 지역의 춤사위인 머리 윗사위가 주조를 이루고 있다. 칼 돌리는 동작들이 다양하고 힘차다. 다른 검무에서 볼 수 없는 특징이 있다. 첫째, 시작할 때 오른손으로 패자 끝을 손가락 사이에 끼고 시작한다. 둘째, 엄발장단의 선 춤사위에서 첫 박자를 강조하며 손목을 포물선을 그리며 위에서 아래로 팔목의 힘을 빼고 어깨선에 맞춰 앞으로 떨어뜨리는 동작과 세 번째 박자에 손목을 이마 앞쪽에서 첫 박자와 반대로 위를 향해 절도 있게 꺾는 동작을 한다. 셋째, 타령장단 시작(방석 돌아 시작) 앉은 자세에서 자기 발끝에서부터 손을 중앙의 칼 앞으로 끌어오면서 (오른쪽 팔 동작, 왼쪽 팔 동작 오른쪽과 동일) 양손을 땅 짚고 좌 우세 후 양손 땅 짚고 한 뼘씩 앞으로 두 번 옮기는 동작을 한다. 넷째, 오른쪽 땅 치고 이마 치기 동작(좌, 우 똑같이)을 한다. 다섯째, 도는 동작은 반드시 왼쪽으로만 돈다. 여섯째, 연풍대 동작에서 앉아서 땅을 치는 동작을 한다. 일곱째, 춤사위는 수족상응(手足相應)의 동작이 중심을 이룬다. 여덟째, 객석을 향해 2열 종대로 춤을 마무리하며 끝낸다.
(3대 무형문화재 임영순 보유자) 평양검무는 평양지방의 지역의 특색이 강하게 스며든 스타일의 춤이다. 춤사위가 동적이며 매우 힘차고 절도가 있으면서도 단아한 멋이 있다. 맨 처음 방석돌과 숙입사위, 연풍대, 까치걸음, 번개 사위는 평양검무만의 독특하고 활발한 춤의 특징이다. 평양도식의 피리 가락을 주조로 춤의 구성방식은 입 춤사위가 많은 편이고 규칙적이며 다양하다. 팔을 벌려 서로 교차하는 동작에서의 칼 놀림의 다양한 동작들은 힘차고 조화가 일품이다. 칼 사위 중 연풍대에서 칼을 밖으로 돌리다가 무대 바닥을 짚는 동작이 매우 독특한 춤사위라고 할 수 있다.
질문2. 평양검무만의 가치
(2대 무형문화재 정순임 보유자) 현재 유일하게 남한에서 복원되어 전승되고 있다. 향후 통일 후 혹은 종전 상황이 도래 시 전승 보존된 북한 지역의 무형문화재인 평양검무의 가치는 무궁무진할 것이다. 평양검무는 검무의 음악적 구성형식과 궁중정제에 기반을 둔 춤 동작을 갖춤으로써 평양지역의 특성을 지닌 춤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3대 무형문화재 임영순 보유자) 평양검무는 우리 민족의 검무이면서 북한의 전통춤이기도 하다. 북한에서도 이미 사라져버린 평양검무가 남한에서 보존되고 무형문화재로까지 전승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무용사적 가치가 있다. 평양검무의 전승 보존 연구 제의성과 축제의 가치와 다양한 콘텐츠로 확장 및 활용 방안을 모색하며 앞으로 남북무용 교류의 미래 가치가 있다.
(조OO 국가 무형 문화재위원) 평양 검무는 상고시대부터 오늘날까지 다양한 형태로 연행되어 내려온 우리나라 춤의 기원이라 할 만큼 오랜 역사성과 정통성이 깊은 춤이다. 역사적으로 북방 기반의 춤 들은 평양을 거쳐 해주, 서울로 유입됐으며 예술적 수준 또한 높다. 그 중 평양검무는 평양에서 오랫동안 전승되어 오던 춤으로 평양지방의 독특한 향미가 가미되어 지역적인 특색이 강한 춤이다. 현재 북한에서는 아쉽게도 그 명맥이 끊겼지만 다행히 남한에서 전승의 맥을 이어가고 있으니 역사를 되돌아볼 수 있는 산물이며 민족의 특성과 지역의 예술적 의미가 담긴 전통예술이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평양검무는 춤의 보존과 연구, 발전이 더욱 중요시되는 문화재 중 하나이다. 또한 평양검무는 이북 5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종목으로 향후 남북의 전통예술인들이 함께 모여 한바탕 축제를 펼칠 수 있는 문화적 자산이자 기반이 될 수 있다.

(최○○ 이북5도 무형 문화재위원) 평양검무는 고구려의 강한 기상, 예의, 심리적 예술 감각의 균형과 조화를 고루 갖춘 전통 검기무로 문화예술 부분에서는 자료가 희소해서 많은 연구가 필요하지만 향후 남북교류의 역할에 있어 큰 중심이 될 것이다. 평양검무는 무게감이 있고 동작이 힘차며 다양한 칼 사위들과 반복적인 동작을 통해 조금 더 예술적으로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동작들로 표현이 된 것 같다.

질문3. 평양검무의 대중화 작업

(2대 무형문화재 정순임 보유자) 평양검무는 매년 안양 정기 공연과 서울 정기공연, 한국 민속예술축제 공연으로 평양검무를 널리 알리며 일반인 및 전문 무용인들에게 알리는 작업을 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 정기 공연은 안양에서 1992년부터 시작 2019년까지 매년 진행하였다. 안양 정기 공연이 갖는 의미는 이봉애 선생님이 남한에 정착한 곳이 안양이며 보존회 설립 및 평양검무의 안양 정기 공연이 갖는 의미는 안양지역에는 문화재로 지정된 전통춤이 없으므로 안양지역주민에게 전통춤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와 매년 공연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 서울 정기 공연은 1997년부터 시작 2010년까지 비정기적인 공연으로 하였고 2011년부터 정기 공연을 시작하였다. 1985년 평양검무 보존회 설립 당시는 무용전공자가 아닌 비전공자들이 모여 전승이 시작 연령층도 높았으며 거의 취미생활로 입문을 하여 이수자까지 되는 상황이라 전문성이 많이 떨어졌지만 현재는 평양검무의 연령층이 낮아지고 관심 있는 전공자들의 입문으로 이수자들이 나오기 시작 현재 석, 박사들의 과정을 하며 평양검무에 관심을 두는 전문가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다양한 레퍼토리와 콘텐츠 개발 및 교육프로그램들을 연구하고 있다. 평양검무의 대중화를 위해 보존회의 전문성을 키우기 위한 노력과 전문가들 유입에 노력을 하고 있다.

(3대 무형문화재 임영순 보유자) 첫째, 평양검무의 전승 및 발전을 위해 새롭고 다채로운 공연의 레퍼토리 작업이 필요하다. 둘째, 평양검무의 예능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연마자의 재생산 구조가 체계적이어야 한다. 셋째, 평양검무의 전수 교육을 위한 체계적인 전승 교육프로그램과 전승 교육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넷째, 평양검무의 전수 활동이 교육기관의 프로그램과 충분히 연계가 필요하다. 다섯째, 평양검무의 역사와 이론적 학술적인 연구, 무보정리, 영상작업을 통한 체계적인 자료화기록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과 응용체계에 이르는 영력 연구가 필요하다. 여섯째, 다양한 세미나와 학술 토론회를 통한 평양검무의 가치와 정책 토론 등을 통한 자리매김을 해야 한다.

(조○○ 국가 무형 문화재위원)

현재 무용인이나 전공자인 학생들은 단체 무인 춤보다는 홀 춤인 춤에 관심을 더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홀 춤은 시대에 맞추어 다양하게 변화 발전되어 왔다. 이러한 현상으로 불균형적인 형태가 나타나면서 인기종목과 비인기 종목으로 나뉘어 안타까운 현실이 되었으며 비인기 종목들은 사실상 발전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역사성과 예술성이 높은 종목들을 발굴하여 알리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현재 대한민국무용협회에서 주관하는 전국 초, 중, 고 무용 콩쿠르에서 단체종목으로 평양검무가 명작무로 선정되었다. 평양 남도 문화예술의 대표성을 갖는 평양검무로 평안도의 독특한 지방색을 띄고 있는 전통춤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일 것이다.

(최○○ 이북5도 무형 문화재위원)

보존회 이수자들은 어떠한 방식으로 평양검무에 대한 인식을 넓힐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또한 무용 전공인을 영입하고 계승 활동에 대한 고민과 이미 배출된 이수자들이 보존회에 동참하여 다양한 공연들을 선보일 수 있게 하는 부분에서도 보존회에서는 많은 고민을 해야 할 것이다. 이전에는 평양검무 보존회의 이수자들이 대부분 취미로 입문을 하게 된 비전공자들로 이루어졌으며 또한 나이도 많아 외부에서 평양검무 공연에 대한 인식이 전문성과 예술성이 떨어져 보인다는 평을 받았다. 그러나 현재 배출된 전문인 이수자들에 의해 각 분야에서 학문적 연구와 활발한 공연 활동을 통해 평양검무의 인식들이 새롭게 거듭 나아질 것으로 보인다.

평양검무의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전문가 4인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평양검무만의 춤사위의 특징과 예술적 가치, 대중화 작업을 위한 노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평양검무는 쌍대춤으로 초창기에는 8검무(八劍舞)로 추었으나 무대의 크기나 공연 성격에 따라 조율될 수 있으며, 춤사위가 크고 활발하며 다른 검무에서 볼 수 없는 다양한 칼 돌리는 동작들이 힘차다. 둘째, 남북의 분단으로 인해 전승되고 있지 못하는 북한 지역의 평양검무가 남한 지역에서 복원하고 전승되고 있다는 것의 예술적 가치가 있다. 셋째, 서울과 경기지역에서 정기 공연을 통해 대중들과 지속적인 소통의 의지가 있다. 넷째, 초창기 비전공자들의 취미생활로 시작되었으나, 현재 전공자들의 입문으로 이수자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다양한 공연레퍼토리와 콘텐츠 개발 및 교육프로그램을 연구하고 있다. 다섯째, 평양검무보존회의 전문성을 키우기 위하여 전문가들의 유입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학문적 연구가 지속해서 이루어져야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Ⅲ. 연구 결과 및 논의

1. 연구 결과

본 연구는 평양검무의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하여 무용인들의 다양한 의견을 무용전공생 집단의 인식 설문 조

사와 평양검무의 전문가 2인의 심층 면담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논의 사항을 추출하였다.

1) 평양검무의 인지도

평양검무에 대한 무용전공생들의 인식은 200명의 설문에 응하여 56%가 “알고 있다”고 답하였다. 그러나 다른 검무에 비해 대중의 인식의 적은 이유는 홍보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의견과 매해 정기 공연은 하고 있으나, 대중과 소통하기에는 공연 횟수가 매우 적어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적다고 하였다.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는 경우 동영상 찾아 공연영상을 참고하고 동작을 스스로 공부하고 있다는 기타 의견이 다수 있었다. 또한, 평안남도 무형문화재 1호로 지정되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에 80%가 응답하여 평양검무의 이름을 들어보았으나 구체적으로 인지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2) 평양검무의 예술적 가치

평양검무는 상고시대부터 오늘까지 다양한 형태로 연행되어 내려온 우리나라의 춤의 기원으로 오랜 역사성과 전통성이 깊은 춤으로 지역의 특색이 강한 북한 검무로 현재 남한 지역에서 복원이 이루어졌고 전승되고 있다. 이러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평양검무에 관하여 무용전공생들은 다른 검무에 비교하였을 때 작품성과 예술성이 높다고 응답하였다.

평양검무만의 예술적 가치로는 팔 위에 칼을 얹지 않고 손목을 돌려 칼을 돌리는 돌림사위와 위로 칼을 힘차게 뿌리는 칼 동작으로 각각 40%, 37%로 높았으며 이는 검무의 예술적 특별성은 칼 동작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알 수 있었다. 고구려의 강한 기상, 예의, 심리적 예술 감각의 균형과 조화를 갖춘 전통 검기로 자료가 희소하여 많은 연구가 필요하지만 그만큼 연구의 가치가 높은 춤이다. 특히 칼 동작의 사위가 다른 검무들과 비교하여 반복적인 동작으로 표현하여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있는 독특성을 예술성으로 손꼽을 수 있다.

2. 활성화 방안

다양한 기관에서 전통예술 프로그램 개설을 통해 평양검무가 대중들에게 홍보가 되고 교육을 통한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여 다양한 콘텐츠가 개발되어 대중들에게 관람의 기회가 증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이를 위해서는 무형문화재의 원형 보존 및 계승 발전을 도모하고, 전통문화의 대중화로 일반 참여를 유도하며 다른 지역과 문화교류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으며, 각 대학교와 예술단체에서 재능 기부를 통한 활성화를 유도하고 각종 공연의 다양한 연출 및 현대화를 도모한 공연레퍼토리 개발을 통해 관객 중심의 찾아가는 공연을 확대 추진해야 한다.

또한, 평양검무 보존 및 전승을 위한 공간 확보를 통해 시민들과의 지속적인 접촉도 도모해야 한다. 시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초등학교, 중학교 등의 전승 학교를 지정하여 세대를 아우르는 폭넓은 강습 프로그램을 통해 무용전공생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접촉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들을 제공해야 한다. 평양 검무의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학술연구를 통해 전승 방법의 구체화를 도모하고 실기와 이론의 균형 있는 전승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평양검무의 전승과 활성화 모색을 위한 분석연구로 무용전공생들 200명에게 설문 조사를 진행하고 전문가 심층 면담을 통해 의견을 수렴 및 분석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 과정을 통해 얻은 결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평양검무는 3번의 복원과정을 무형문화재 전문위원들과 함께 진행하였으며 현재 평양검무보존회에서 전문가 양성교육과 공연을 통해 전승을 이어가고 있다. 둘째, 평양검무는 북한 지역의 검무이나 현재 남한 지역에서 복원과 전승을 한정적으로 이어가고 있으며 남북한이 분단된 상황에서 보존과 전승의 역사적 가치가 있다. 셋째, 평양검무에 관한 무용인들의 인식은 높으나 적은 횟수 공연 및 레퍼토리와 교육 기회 제공의 부족 및 홍보 부족으로 인하여 대중과 소통이 적다. 넷째, 평양검무는 다른 검무에 비해 춤사위가 크고 활발하며 팔 위에 칼을 얹지 않고 손목을 돌려 칼을 돌리는 돌림사위 동작의 예술적 가치가 있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평양검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기관에서 전통예술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평양검무를 대중에게 알려 무용전공생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전문성을 갖춘 인재 양성이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으로 평양 검무가 전통무용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역할을 할 것이다.

이에 평양 검무의 후속 연구가 지속적 이루어지기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의 설명력을 높이기 위해서 확률적 표집을 진행하여 후속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후속 연구에서 다양한 콘텐츠 프로그램 개발을 한 것을 선택하여 심층적으로 분석을 하여 대중의 인지도에 관한 결과를 제시한다. 셋째, 전통무용 분야의 범위를 넓히고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 된다.

참고문헌

- 김권택(2009). 검무의 미학적 특성과 가치. **움직임의 철학. 한국체육철학회지**, 17(1).
- 김미경(2012). **무형문화재 정책 및 운영의 발전 방안 연구**. 박사학위논문. 배재대학교 대학원.
- 김영란(2005). **평양검무와 진주검무의 비교연구**. 석사학위논문.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영희(2009). 한국 근대춤에서 검무의 변화 연구. **한국무용사학**, 10.
- 김영희(2016). <검무> 구조의 분석 : 문헌과 음악을 중심으로. **공연과 리뷰**, 23(2).
- 김운태(1998). **한국 검무사 연구**. 석사학위논문. 청주대학교 대학원.
- 김선정, 최해리(2022). 무형문화재 '전통무용'의 개념과 범주에 대한 재고찰. **한국무용과학지**, 39(3).
- 김효순(2003). 중요무형문화재 무용분야 지정 현황 비교 조사 연구. **무용역사기록학**, 4.
- 강인숙(2016). 무형문화재법 변화에 따른 무용 무형유산의 조사 방안. **무형유산**, 1.
- 강인숙(2018). 국가와 시·도 무형문화재 무용 종목 전승 현장의 당면 과제. **무형유산**, 5.
- 민태금(1984). **해주검무와 진주검무의 비교연구**.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 박경미(2005). **해주검무의 춤사위 고찰**.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전통문화예술대학원.
- 박은영(2002). 시대별로 보는 한국의 검무. **민족무용**, 2.
- 서문현(2017). **시, 도지정 무형문화재 <무용부분>운영 현황에 따른 발전 방안연구**. 박사학위논문. 세종대학교 대학원.
- 신현규(2017). 융복합의 공간, 평양기생학교. **한국문화융합학회 2017년 하계학술대회 자료집**.
- 심승규(2010). 궁중무용에서 본 남북한 무용의 문화 특성. **한국무용 연구**, 28(2).
- 이병욱(1999). 중요무형문화재 지정에 따른 연구성과와 과제: 무용분야. **문화재**, 32.
- 이지연(2004). **이봉애의 평양검무**.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 이재필(2018). 국가 및 시·도 무형문화재 제도 운영의 성과와 과제: 지정 제도 및 지정 현황을 중심으로. **무형유산**, 5.
- 이종숙(2016). <진주검무>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이후의 변화에 관한 소고. **문화재**, 49.
- 임수정(2006). 검무(劍舞)의 진행방식에 관한 연구-여기(女妓) 검무를 중심으로. **동양예술**, 11.
- 임영순, 정은영(2015). 평양검무의 무용사적 가치. **움직임의 철학. 한국체육철학회지**, 23(3).
- 임영순(2017). **평양검무의 실체분석과 인지도에 관한 연구**.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세종대학교 대학원.
- 안병주, 민현주, 배수을(2002). 신무용(新舞踊) 계열의 남북한 검무 비교. **무용역사기록학**, 3.
- 양종승(2015). 문화재보호법과 이북5도 무형문화재. **한국전통공연예술학**, 4.
- 정수진(2003). **한국 무형문화재 제도의 성립: 그 사회적 조건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강대학원 대학원.
- 조보라(2005). **평양검무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대학원.
- 조남규(1998). 검무의 지역별 유형적 특이성에 관한 연구. **체육과학**, 18(18).
- 최희아(2021). 남한에서의 북한지역 기반 무형문화재 전승과 보존에 관한 제도 분석연구. **무용예술학 연구**, 81(1).
- 유안나(2020). **평양검무의 변천 과정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융합산업 대학원.
- 황지윤(2005). **평양검무 춤사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정녀, 성기숙(1996). **무형문화재 조사보고서 19 입춤, 한량무, 검무**. 서울문화재단관리국.
- 민향숙(2016). **이론 전승 행보 무보 평양검무**. 네오출판사. 서울 동대문.
- 문화재청(2020). **제1차 남북문화유산 정책포럼**.
- 한국문화재단관리국(1998). **重要無形文化財 調査報告書 : 사직대제·평양검무·해주검무**. 단행본 국립중앙도서관.

ABSTRACT

Analysis on the Transmission and Revitalization of Pyongyang Sword Dance

Deukchun Lee* Sangmyung University

As an analytical study to find ways to revitalize Pyongyang Sword Dance, 200 Korean dance majors were surveyed and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a total of 4 experts, 2 experts in Pyongyang Sword Dance and 2 members of cultural heritage. Pyongyang Sword Dance has been restored to its original form three times with experts in intangible cultural properties, and the Pyongyang Sword Dance Preservation Society continues to pass it down through expert training and performances. continues on a limited basis. Pyongyang Sword Dance is worth preserving and transmitting beyond the situation of division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Dancers are aware of Pyongyang Sword Dance, but its popularity is low due to the small number of performances and lack of publicity. Compared to other sword dances, Pyongyang Sword Dance has large and lively dance movements, and the top of the head is the main focus. In particular, the turning movement, in which the sword is turned by turning the wrist without placing the sword on the arm, is meaningful as an artistic value. Based on these research results, in order to revitalize Pyongyang Sword Dance a variety of publicity should be conducted through developing a performance repertoire and providing educational opportunities. It is necessary to continuously nurture dancers with expertise to continue Pyongyang Sword Dance, and as various contents related to Pyongyang Sword Dance are developed, the public is given the task of creating an environment in which opportunities for viewing can be increased. Based on the above, suggestions for follow-up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 in order to increase the explanatory power of the study, a probabilistic sampling should be created and presented. Second, in follow-up research, various contents programs of Pyongyang Sword Dance are investigated and analyzed, and research results on how they affect public awareness are presented. Third, it is considered that the status of Pyongyang Sword Dance should be expanded in the scope of traditional dance, and additional research should be conducted on the role that Pyongyang Sword Dance can help in the development of traditional dance.

Key words : Sword dance, Pyongyang Sword Dance, Intangible cultural assets, Dace contents

논문투고일: 2022.11.29

논문심사일: 2023.01.02

심사완료일: 2023.01.18

* Ph.D. Candidate in Dept. of Performing Arts Management, Sanmyung University